

연장탐방 이곳이 R&D 현장
동부한농화학(주) 농업기술연구소

‘경영마인드’ 도입한 기술개발에 진력 할 것

명실상부한 농업 선도기업 연구소, 40여명 연구 위해 주경야복
생력화 · 환경친화형 약제 및 고기능 농자재 개발, 규모만큼이나 성과 빛나

농약이 있음에 우리가 있다’는 반농약 농
법 종사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소를 금기 어렵다. 과연 그
들은 농약 없는 농사를 정말로 지어볼 참인가?
더 이상 과학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불행한 현실
이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농약 개발 및 안
전성 홍보를 위한 세 번째의 장. 한국과학기술의
메카,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동부한농화학(주)
농업기술연구소(소장 鄭奉眞)를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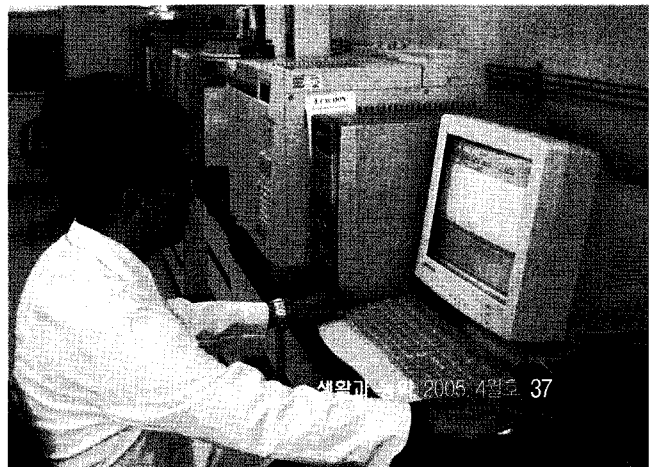
연구개발을 위한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
는데다 기초연구부터 상업화에 이르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가능케 하며 주변 대학 및 관련 국
채연구기관 등과의 유기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적지다. 또 연구소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오직
혁신만이 살길이다’ 문구는 잠재적 긴장감을 불
러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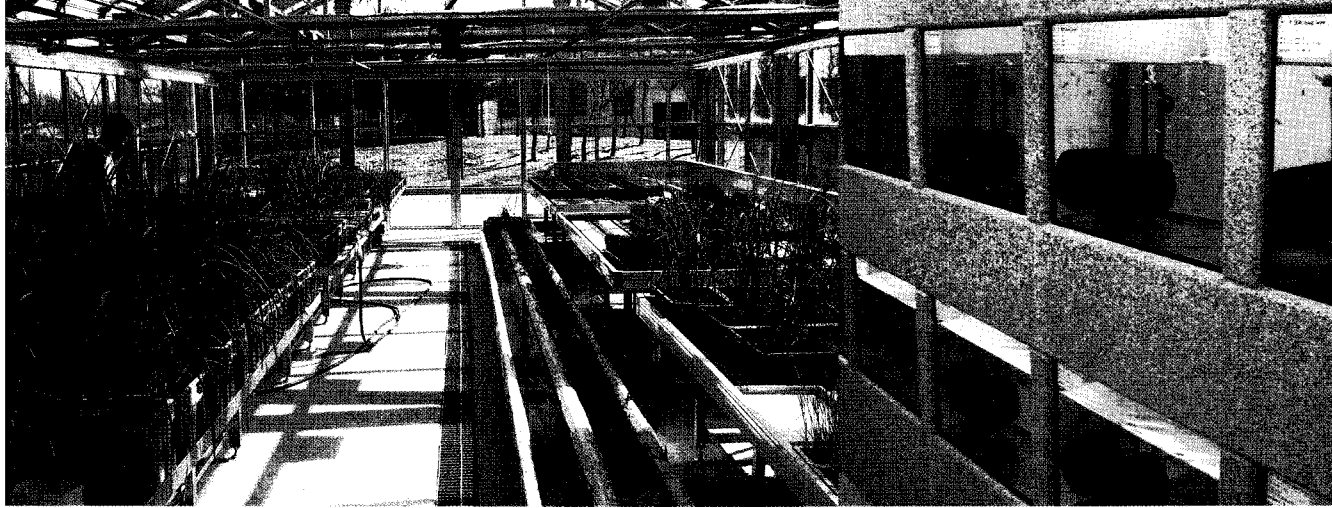
Metamifop · Bistrifluron 개발 등 성과 많아

“이젠 기술개발 분야도 경영마인드가 기초된

연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성공확
률을 높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농업연구 분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GLP시스템을 도입하고 장
기적 안목서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합니다. 이제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농약회사 역시 이런 대세에 합류해야 생존이 가
능할 것입니다.” 생력화 및 환경친화형 작물보호
제, 고기능성 농자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鄭소
장은 명실상부한 농업 선도기업 연구소로서 변
화와 신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같이 말하고
혁신만이 능사임을 강조했다.

1967년 생물시험소로 모습을 갖춘 동부한농





화학(주) 농업기술연구소는 87년에는 한농중앙 연구소로 과학기술처에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 97년에 농약 품목등록시험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02년에 어독성 등록시험 GLP인증 기관 취득 등 그 위상을 유감없이 발휘한 업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연구소이다.

어독성 실험실을 포함한 3백여평의 연구실과 4백50여평의 온실 및 제제실, 3만여평의 전답 및 과원 시험포장을 지니고 있으며 화학 생물 농자재 바이오팀 등에서 40여명의 연구원들이 친환경 우수농약 개발 보급을 위해 주경야독 하고 있다.

동부한농화학(주) 농업기술연구소는 그 규모만큼이나 성과도 적지 않다. 1983년 혼합 입제 농약 제조방법을 개발한데 이어 기능성 육묘 트레이기술 개발, 옥사지닐아줄게 살균제, 비티함유 미생물 살충제, 방출조절형 농약 조성물 및 제조방법, 신규 아크릴레이트계 살균제, 미생물 농약 등록 및 상품화, 제초제 Metamifop 및 저독성 살충제인 Bistrifluron 개발 등 무수하다.

신규물질 창출로 해외시각 바꿔

타 연구소와의 차별화 전략을 묻는 질문에 鄭소장은 “연구업무 수행의 6-sigma 적용을 통한 연구의 효율성 및 성공률을 제고하고 ERP시스템 도입을 통한 연구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

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 연구시스템 구축”에 있다고 말했다.

鄭소장은 “이제 한국에서도 신규 물질이 나오는 나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며 해외시각을 전한 뒤 “그 동안 너무 단편적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었다. 그것은 장래를 보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다”며 변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鄭소장은 “아직 인프라가 미비하지만 정부지원을 받는 등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좀 더 현실적 연구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와 함께 鄭소장은 “연구 인프라 역시 과유불급”이라며 “동부한농 수준이라면 적정수준이다. 더 이상은 사치다”고 말하는 등 시종 자신감으로 일관 했다.

